

선장면



선장면은 14개 법정리, 31개 행정리로 이루어 졌다.

[2] 선장면 개항

본래 아산군 신창면 대서면의 지역으로서 굴산, 용당, 흥언, 장대, 신리, 군자동, 신성,오룡동, 성지정, 신기, 선장, 창동, 연동, 신동, 일죽, 성산, 광암 등의 17개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군면의 폐합에 따라 북면의 오룡동, 신궁, 대포, 신흥, 흥곶, 용궁, 흥아곶 의 7개리와 전 천안군 돈의면의 가락, 채신언, 흥곶 등의 3개리와 덕흥면의 십자연, 포남, 신흥, 종덕, 대정의 5개리와 언리, 신덕리의 각 일부와 예산군 신중면의 하평리 와 아산군 이서면의 신문리와 삼서면의 신리와 예산군 금평면의 장곶리와 면천군 비방면의 하덕, 신평, 상덕, 돈곶의 4개리를 병합하여 이곳에 있는 조정의 이름을 따라 초정면이라 하여 아산군에 편입되어 궁평, 신동, 신문, 가산, 군덕, 대흥, 대정, 선창, 돈포, 신덕, 장곶, 죽산, 채신언, 흥곶의 14개리로 개편 관할 하였는데 1971년 충청남도령 제8호로써 선장포의 이름을 따라 선장면으로 고치는 동시에 도고면의 신성리를 편입하여 15개리를 관할하였다. 동쪽은 신창면, 남쪽은 도고면과 예산군 신암면, 서쪽은 바다 건너 당진군 합덕읍과 우강면, 북쪽은 강건너 인주면에 닿는다.

역사적으로 선장면은 백제시대에는 굴직현(屈直縣)이요 고려시대에는 신창현이(新昌縣)요 1914년에 초정면(椒井面)으로 1917에는 선장면(仙掌面)으로 개칭되었다. 1996년에 예산군 신암면 신중리 중 일부인 하평리가 선장면 신덕리로 편입 되었다.

선장면 명칭은 '삼대명당중(三大名堂中) 선입인장지지(仙入印掌之地)'라는 말에서 유래 되었다고 한다.

선장면의 행정구역을 보면 31개의 행정리와 14개의 법정리로 나누어져있다.

인구는 1,557세대에 인구수는 4,984명으로 남자2,501명과 여자2,48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대당 3.2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실상 인구는 아산시에서 두 번째로 작다.

토지시목별 현황은 총 경지면적 3,095ha중 논이 1,394.2ha정도 있고 밭이 353.8ha 임야가 651ha, 기타가 969ha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용 기구 및 기계보유 현황을 살펴보자면 경운기 810대 트랙터 184대 주행형분무기 45대 살분무기 85대 분무기 408대 또 동력이앙기 414대 동력 양수기 127대 콤바인 69대 바인더 5대 동력사료 예취기 339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영농의 기계화 작업이 많이 진행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선장면의 가축사육에 관해 알아보면 총 228가구에서 11,694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것들을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해 보자면 한우는 1,278마리 젖소는 320마리 돼지는 7,549마리 사슴 265마리 산양은 778마리 토끼60마리 닭1,300마리 오리 56마리 꿀벌85군이 된다.

수리시설현황은 총 85개소가 있는데 이중 저수지가 1개소 양수장을비롯한 다른 것은 업소 관정만이 84개소가 있다.

사회 복지시설은 1개소가 있는데 57명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은 2개소로 137명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후 경로당은 25개로총 952명이 이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중 남자는 428명 여자는 524명 정도가 된다.